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으로 내 마음의 금을 지워 보내다

박연옥*

매 학기마다 돌아오는 논문 발표회. 석사과정 1학기 때는 논문을 작성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선배님들의 논문 발표를 듣는다는 것 자체에 마냥 들떠 참석했었다. 막상 참석하고 보니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발표회장 속에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한 때이다. 그러던 내가 벌써 석사과정 4학기를 보내며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난 학기 초, 나는 지도 교수님께서 농담으로 8학기 만에 논문 쓰라 하셨던 것을 어이없게 약 두어 달 전까지도 계속 진담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지도 선생님의 화법도 모르고 그랬던 적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 학부 졸업 후 3년이란 공백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한 늦깎이 석사 과정인 나는 전공에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을 다시 익혀 보기에도 바빴다. 바라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공부하면서 받는 괴로움 역시 컸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학자가 되기 위한 첫 판문과 같은 석사 논문을 쓴다는 생각에 다시금 부담감, 설렘, 기대감 등의 감정이 엉섞여 있다.



독어독문학과의 강창우 교수는 ‘언어학 논문 작성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그간 학과 논문 발표회를 봐 오면서 아쉬웠던 것은 논문 발표자가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는 일은 많지만, 정작 발표를 마치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 수 없었던 점이다. 결국은 그저 나의 바람에서 그칠 따름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지적받은 문제점들까지 풀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면 아직 논문을 제대로 써 본 일이 없는 석사과정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열린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작성법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알려주는 강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많이 알게 되었다. 이제 막 학위논문을 써야 하는 시점에 놓인 나에게 기본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 준 워크숍이었다.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의 주최로 10월 28일, 29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8일은 <사회학 논문 작성법>, 29일은 <인문학 논문 작성법>으로 강연 일정은 나뉘어 있었다. 28일의 강연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29일의 강연에만 참석했다.

이날 열린 <인문학 논문 작성법>은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에 비해 강연 하나가 더安排되어 있었다. 각각 한 시간씩 배정된 네 개의 강연은 준비된 내용에 의해 시간이 짧아 아쉬운 반면, 오후 시간 동안에 네 가지 강연들을 듣는 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비록 좀 힘든 면은 있었지만 나는 한창 논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열심히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시간은 김태환 박사(글쓰기교실)께서 ‘논문 작성법 일반’이란 제목으로 ‘논문의 목표와 대상, 논문의 구조 만들기, 자료 수집과 검토, 인용과 풀어쓰기, 문장론’에 대한 내용을 강연 하셨다. 논문 쓰기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추려 잘 설명해 준 강연이었다. 그 가운데 ‘논문의 “목표”와 “대상”을 각각 그 역할을 명확히 해서

논문을 쓸 것’이라는 내용은 논문 주제를 정할 때 내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을 일러준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또 ‘논문의 구조 만들기’에서는 “피라미드 구조”라는 유용한 비유로 설명해 주셔서 논문 작성 시에 논문 구조의 균형을 잡을 좋은 참고 사항으로 삼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인문학을 크게 언어학, 문학, 역사학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논문 작성법을 구성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의 ‘언어학 논문 작성법’은 강창우 교수님(독어독문학과)의 강연으로, 선생님께서는 ‘논문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논문 작성의 준비, 목차의 작성, 초고의 작성, 퇴고와 출판’ 순으로 강연해 주셨는데, 그 순서마다 체크리스트까지 두는 세심함을 보이셨다. 강연 중에 ‘언어학 논문 주제의 선정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주실 때, 한편으로 나는 대학원 수업이나 세미나, 스터디 등의 활동 중에서 내 논문에 대한 (강창우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관심 계발”로 확장시



‘문학 논문 작성법’을 강연한 영어영문학과의 조철환 교수.

키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나는 문학 분야의 논문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문학 논문 작성법’ 시간에도 주제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내용을 들을 순 없었다. ‘문학 논문 작성법’을 강연한 조철원 교수님(영어영문학과)께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논문 작성’의 지침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논문 작성법에 대한 이론 강연이 다른 시간들의 강연에서 이미 잘 다뤄졌다고 전제(前提)하시고, 선생님의 강연 시간에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의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먼저 밝혀 주셨다. 강연은 ‘문학 논문 작성 사례 – 박사논문 회고담’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의 한 예 – 어떤 영문과 학생의 경우’라는 내용으로 한 시간 동안 살펴보았다. 대학원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전면적인 논문 작성의 실제를 보여주신 예였다. 두 문건 안에 담긴 논문 작성의 힘든 과정을 참석자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미리 논문 작성의 당연한(?) 수고로움을 맛보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아직 석사 논문 작성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문 작성에 대한 간접경험은 내게 정서적으로 소중한 배려가 되었다. 논문을 쓰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의례와 같은 고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이상, 다시 의연하게 논문을 써야겠다는 굳은 다짐마저 들었다.

네 번째 시간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인 정용욱 교수님(국사학과)의 ‘역사학 논문 작성법’ 강연이었다. 정용욱 선생님의 강연은 무엇이 좋은 논문인



‘역사학 논문 작성법’을 강연한 국사학과의 정용욱 교수.

지에 대한 첫 질문을 화두로 해서, ‘역사학 논문의 정의, 논문 작성법, 글쓰기에 대한 조언’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사료에만 매몰되지 않을 것과 논문 기획의 중요성을 강연하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역사학 논문에서 사료의 해석의 문제는 문학 분야의 논문에서 고전 문헌을 논거로 제시하는 학술적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고전 문헌이 많은 중국 문학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었다.

중문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내게 논문 쓰기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부담도 크다. 나에게는 석사과정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새로운 문구가 생겼다. 아마 논문을 쓰면서는 이 문구가 더 자주 떠오를지도 모른다. 공자(孔子)는 제자 염구(冉求)가 그에게 선생님의 도(道)가 싫지는 않지만 염구(冉求) 자신에게는 너무 힘에 부친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다. 이런 염구의 말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역부족인 사람은 중도에서 그만 두게 마련인데, 지금 너는 (아예 하지 못한다고) 금을 그어 놓고 있구나!(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劃)”** 공자(孔子)는 염구(冉求)의 말 속에 담긴 생각을 간파하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문제를 지적해 준 것이다. 나는 논문을 쓰기 도 전에 부담감부터 갖게 돼서 내 스스로를 한계 지우는 일부터 했던 것 같다. 글쓰기교실에서 주최 한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을 듣고 나서는 내 스스로 그어 놓았던 금을 지울 수 있는 많은 계발을 받았다. 아마 같이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 대다수도 각자 계발 받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학위 논문 작성법 워크숍〉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연의 주제에 있어서도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근래에 나는 석사 논문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논문에서 어떤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정용욱 선생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선생님은 인문학 논문의 대상은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종종 현실이 아니라 이론에 끌려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어떤 이론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했느냐는 것 역시 논문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싶다.

즉 이는 논문의 서론에 제시되는 ‘연구 방법’일 것이다. 유용한 이론 틀은 중국 고문현의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한 번쯤은 다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보완·발전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또 다른 시각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는 일을 생각해봤을 것이다. 앞으로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각 학문 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나 이론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활용 방법을 소개할 수 있기 바란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인문학이라는 학제에 둘이 있지만, 언어학, 문학, 역사학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 인문학에서 연구 방법이나 이론에 있어서 각 학문 분야 간의 상호 소통의 기회도 글쓰기교실에서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글쓰기교실에서 준비한 이번 워크숍이 언어학, 문학, 역사학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 방법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강연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서면 중복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 안배의 문제도 좀 더 고려되었으면 더 좋은 워크숍이 될 것 같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 『논어·옹아편(論語, 雍也篇)』